

당신의 기억, 하나의 문장으로 선물합니다

타라재이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시민들 이야기 듣고 타자기 이용
문장 만들어 유리병에 넣어 전달
18~21일 유튜브 생중계 진행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지은 한 문장을 오래된 타자기로 기록해 선물하는 '2020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미래의 기억을 보관해드립니다'가 18일~21일까지 유튜브 '타라재이' 채널에서 열린다.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나니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연은 "모든 잠 못 들던 밤, 수많은 눈물들로 당신의 꿈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됐다. 동생과의 찢릿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손을 잡고 길을 걷지 않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압니다."라는 멋진 문장으로 탄생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작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지어 선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메모리키피'로 활동하는 타라재이(송재희)는 지난 2015년부터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듣고 문장을 발췌하거나 새로운 문장을 떠올린다. 새로 지어낸 문장은 1920년도에 제작된 빈티지 언더우드 타자기로 한장 한장 기록되고, 그 문장을 유리병에 넣어 시민에게 선물한다.

타라재이가 진행하는 '2020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미래의 기억을 보관해드립니다'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코로나 19로 예전처럼 길 위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타라재이는 지난해 영무건설과 시민 76명의 후원을 받아 기억보관소프로젝트를 개최했고,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 '메모리키피'에서 사연 신청을 받아 유튜브 '타라재이'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 때 희망과 용기를 선물



타라재이 송재영

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올해 프로젝트는 매일 사랑, 새해 등 테마를 갖고 진행한다. 18일(오후 7시~밤 10시)에는 '사랑의 인사-사랑과 이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진행하며 '안녕, 2020년-2020년을 보내며 남기고 싶은 기억' (19일 오후 7시~밤 10시), '달콤한 인생기록-달고 쓰고 시고 짠 당신의 인생 이야기' (20일 오후 3시~6시)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1일(오후 7시~밤 10시)에는 '안녕? 2021년-2021년에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기억'을 주제로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 새해 목표나 다짐 등을 적어 간직할 수 있는 타임캡슐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연은 '카카오톡' 메신저 검색창에 '메모리키피'를 검색, 채널에 접속한 뒤 메인 화면 1:1채팅창에 자신의 사연을 보내거나, 기억보관소 전용 엽서에 쓴 사연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된다. 전용 엽서는 광주 시내 4곳(광주청년센터, 하루키수필집, 손탁앤아이허, 전일245카페)에서 배포 중이다.

사연이 채택된 시민에게는 커피쿠폰과 타자기 문장을, 실시간 방송참여자에게는 타라 머그컵을 보내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듣기는 속히, 말하기·성내기는 더디게 하라

김창희 수필가 '삶의 행간' 펴내

김창희 수필가가 '삶의 행간' (계간문예)을 펴냈다.

2016년 초등학교장으로 정년퇴직한 김창희 수필가는 그동안 서정과 논리를 아우른 단아한 작품을 써왔다.

지난 2019년 '삶을 깨우는 아침단상'에 이어 1년만에 발간한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52편의 글이 수록돼 있다.

1부 '삶의 터널', 2부 '삶의 길목에서', 3부 '세상읽기', 4부 '삶의 지평선', 5부 '아직도 남은 이야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글은 사물과 일상, 관조, 신앙 등 다양한 다양한 모티브들이 정갈한 문장으로 갈무리돼 있다.

저자는 '길들이기'에서 '내가 늘 부끄러워하며 길들이려는 좌우명이 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이다'고 밝힌다. 자신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던지는 금언과도



같은 경우다.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 맛따르리는 장면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한 글은 시적인 울림을 준다. 현학적이거나 사변적으로 흐르지 않고 우리 삶의 단면을 직시하는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아동문학가 박성배는 "'삶의 행간'에는 그의 습관의 의지와 신앙과 정성과 섬세한 마음 등을 한꺼번에 읽고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며 "수필가가 '열정'이라는 말을 타고 삶의 들판과 계곡과 숲속과 외진 길을, 경쾌하게 리듬을 타며, 걸음을 세우고 질주할 때, 독자들은 작가의 허리를 짊어지고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한다.

한편 김 수필가는 광주교육대학교 조산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9년 '계간문예'로 등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내 인생의...' 발간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이 '내 인생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을 펴냈다.

책은 마라톤을 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지난 날의 소회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초판 발행 이후 개정판으로, 마라톤을 하며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일에 공감하게 된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군데군데 저자가 펼쳐 보이는 단상은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나는 러너는 되고 싶지만 고독하고 싶지는 않다. 앞만 보고 달리는 마라톤이 보다는 옆을 보며 이인삼각의 러너가 되고 싶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싶다. 경쟁도 공존하



면서 할 수 있고 살만한 경쟁이 아닌 따뜻한 동반 경쟁의 길로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이다."

책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멀리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주어진 소명을 따라 순명하겠다'는 다짐이다. 아울러 책은 섬 없이 달려온 삶을 마라톤에 비유한 자서전이기도 하다.

한편 보성 출신 유 원장은 고려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 고문과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대구·경북과 교류음악회

19일 금호아트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는 올해 이애리, 이형기 시인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며, 윤교생 작곡가를 초대해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대구·경북우리가곡부르기(회장 이상민)와 교류음악회를 선보인다. 19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의 제목은 '달빛 타고 흐르는 우정의 노래'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지역 간 벽을 허물고 우정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다함께 부르는 노래로 '내 맘의 강물과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주며, '섬진강', '북향', '강 건너 봄이 오듯', 하늘보다 높은 사랑', '잔향', '그대 창 밖에서' 등을 선사한다.

또, '그대있음에', '무지개', '그리워', '꼭 안아 줄래요'도 무대에 올린다.



매달 한차례 음악회를 여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 회원들.

대구지역 초청 성악가로는 소프라노 조지영, 바리톤 김만수가 무대에 오르며, 광주에서는 테너 윤승환과 소프라노 장유리가 출연한다.

이와함께 어린이중창단 '레인보우'와 합창단 '광주챔버싱어즈'도 관객과 만난다. 전석초대.

/전은채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임방울의 소리향연' 온라인 생중계

19일 '아시아도자문화실' 개실 기념 오프라인 공연도 사전예약제 접수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코로나 19 극복을 응원하고, 상설전시 '아시아도자문화실' 개실을 기념하기 위해 '국창 임방울의 소리향연'을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다.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이번 향연은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의 판소리 전승보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연계 공연으로, 임방울 국악제 수상자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첫 번째 무대는 금년 국악제에서 농악일반부 대

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천농악단의 오형우 외 6명의 신명난 풍물판국 무대로 시작된다. 그외 부채춤, 판소리, 퓨전국악, 소고무, 민요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가수 오현오씨가 특별 출연해 '동백아가씨', '가버린 사랑'을 들려줄 예정이다.

온라인 외에도 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연도 사전예약제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공연 이벤트'도 펼쳐진다.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시청하고, '아시아도자문화실' 개실 응원 댓글과 함께 공연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이벤트 참여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062-570-780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